

에스제이엠·만도 침탈에 맞서 금속노조의 대반격을 확대하자

김우용 (금속노조 중앙위원)

7월 27일 에스제이엠과 만도에서 벌어진 직장 폐쇄와 용역강패의 유혈 난자한 테러는 이 나라 지배자들의 추잡한 공모였음이 드러났다.

이명박이 만도를 언급하며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껄이자 기다렸다는 듯 용역강패가 투입됐다. 완전 무장한 강패들이 우리 동지들을 죽도록 팽 때 현장에 있던 경찰은 뒷집진 채 바라만 보며 폭력만행을 비호했다.

경찰은 용역침탈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낀 여성 조합원이 112에 신고했을 때도 철저히 묵살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컨택터스 회장 문성호는 새누리당 간부였고, 컨택터스는 이명박 경호했다고 한다. 현지 경찰 책임자 안산단원경찰서장 우문수는 2006년 포항건설플랜트 파업 당시 하중근 열사를 잇아간 폭력 진압으로 악명을 떨친 후 이명박 집권 후 첫 종로경찰서장을 맡아 촛불집회 탄압에도 앞장 섰던 자다.

사냥개

한마디로, 용역강패 집단 컨택터스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 경찰의 비호 속에서 기업주들의 사냥개노릇으로 돈벌이를 해온 것이다. 그러니 이 범죄자들이 울린 해명 글은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인 현대차 정몽구와 경총의 협박 문이나 다름없다.

“저희 같은 업체가 일부 오해에 의한 희



빼앗긴 공장 앞에서 합성을 지르는 에스제이엠 동지들 — 이들의 외침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

생양이 돼 ‘허가 취소’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사업주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란단다.

피투성이가 된 동지들을 붙잡고 오열하는 우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노동자의 보장된 권리인 파업이 ‘불법 행위’라고? 이 잔혹하고 교만한 자들이 ‘희생양인가?’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에스제이엠 사장은 폭력으로 빼앗은 공장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가동하고 있다. 만도의 사장은 직장폐쇄로 조합원 출입을 막아놓고, 파업 불참과 민주노조 탈퇴를 약속해야 공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 지난해 유성에서 봤고, 그 전해에는 경주 발레오 만도에서 봤고, 또 KEC와 대림자동차에서 봤던 광경이다. 87년 7~9월 대파업 이후 25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의 선봉이던 금속노조를 향해 저들의 술책과 폭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를 향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채 뭉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돌려줘야 할 답변은 무엇인가.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매관매직하는 주제에 우리를 ‘고소득 노조’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금속노조가 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직장폐쇄와 용역 테러, 어용노조라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죽이기 3종 세

▶ 뒷면으로 계속

트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지금부터 만들자. 우리의 분노와 힘, 투지를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 주자.

공장 담벼락과 정파, 현장조직의 차이를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자. 에스제이엠과 만도의 동지들이 빼앗긴 공장과 민주노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에스제이엠과 만도에서 벌어진 용역강패들의 폭력과 집권당 간부 연루 의혹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크다.

게다가 이명박 범죄 집단은 부패와 비리로 말미암은 레임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고, 박근혜도 '공천 헌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저들의 정치적 위기와 우호적 여론을 활용해 이제부터 단호한 반격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폭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역강패와 경찰 폭력으로 민주노조를 옥죄던 일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만 지켜보며 시간을 끌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공장 탈환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가 3차 파업을 앞당겨서 더 강력하게 조직하고 대반격의 단단한 구실을 만드는 일이다. 8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최대한 조직하고, 이후에도 강력한 도심 시위와 공장탈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비난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권택터스에게 내려질 처벌은 허가 취소와 벌금 50만 원이 고작이 될 듯하다. 무엇보다, 에스제이엠 동지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여전히 용역강패들이 공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완성차노조가 대반격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저들의 이번 도발도 사실 완성차가 중심이 된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었다.

저들은 현대·기아차 투쟁이 비정규직 등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할까 봐 걱정해 왔다. 금속 파업이 민주노총 8월 투쟁의 도화선이 돼 레임덕 정권에 타격을 가할까 봐 우려해 왔다.

그래서 금속노조 1, 2차 파업 때는 어쩔 수 없이 찌그러져 있다가 올림픽과 휴가를 이용해 아비한 공격을 한 것이고,



폭력에 짓밟힌 것은 민주노조이고, 우리의 동지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한편에서 금융노조에게는 큰 양보를 해 준 것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이 탄압을 격퇴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저들이 부품사 노조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금속노조 전체의 힘이 약해지고, 저들의 공격의 칼날은 마침내 완성차 노조들을 향해 성큼 다가올 것이다.

당장 이번 공격이 먹혀 든다면 정몽구는 주간연속2교대제,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우리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을 덜받을 것이다.

투쟁의 기회는 열려 있다. 3~4년 만의

파업으로 노동자들의 투쟁 분위기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기아차광주공장 동지들은 휴가철을 노려 사측이 일방적인 생산라인 증설 공사를 시작하자 4시간 파업에 이어 전면파업 계획으로 맞섰다. 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린 사측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8월 6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부분파업으로 1공장 라인이 멈추기도 했다. 이렇듯 현대·기아차 현장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기층의 분노는 팽배하다.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들이 이런 가능성을 더 큰 투쟁으로 조직해 저

들의 반격을 격퇴할 때다. 현대·기아차의 노동자들이 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깨를 걸고 더 강력한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4시간 파업을 넘어선 더 강도 높은 투쟁도 필요하다.

저들이 완성차와 부품사, 타결 작업장과 미타결 작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치고 틈을 파고들려는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저들은 주요 작업장에 절충안을 제시하며 투쟁 전선에서 이탈시키려 할 수도 있다. 그런 시도에 넘어가 전체 투쟁의 김을 뺏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공격을 되풀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업체 해체와 책임자 처벌·심야노동 철폐·비정규직 정규직화·직장 폐쇄 철회 등의 요구로 단결해야 한다.

저들이 테러로 협박하면, 우리는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저들이 직장 폐쇄로 협박하면, 우리는 공장 점거로 맞서야 한다. 저들이 어용노조 분열 공작을 퍼면, 우리는 민주노조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올해 우리 투쟁은 심야 노동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정당한 투쟁이다. 우리의 정당성을 이제 투쟁으로 증명하자. 피투성이가 된 우리 동지들의 억울함을 이제 투쟁으로 갚아주자.



이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이렇게 취급한다.